adventureheartbetheart.com/ko/ko/ko

looked on the groups that were coming to the well. It was four months to the time for harvesting the grain, but here was a harvest ready for the reaper." DA 191.4

“예수님은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서 앞에 펼쳐진 곡식밭을 바라보셨고, 황금빛 햇살에 닿은 곡식들은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장면을 가리키시며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네 달이 남았는데 추수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추수할 만큼 희어졌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물가로 오는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가 네 달이나 남았지만, 여기에는 추수꾼을 위한 추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DA 191.4

“‘He that reapeth,’ He said, 'receiveth wages, and gathereth fruit unto life eternal: that both he that soweth and he that reapeth may rejoice together. And herein is that saying true, One soweth, and another reapeth.' Here Christ points out the sacred service owed to God by those who receive the gospel. They are to be His living agencies. He requires their individual service. And whether we sow or reap, we are working for God. One scatters the seed; another gathers in the harvest; and both the sower and the reaper receive wages. They rejoice together in the reward of their labor.” DA 191.5

“'심는 자는 삯을 받고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리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는 사람은 심고 거두는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봉사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살아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개별적인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든 거두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추수할 때 모으며,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모두 임금을 받습니다. 그들은 수고의 보람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DA 191.5

“Jesus said to the disciples, 'I sent you to reap that whereon ye bestowed no labor: other men labored, and ye are entered into their labors.' The Saviour was here looking forward to the great ingathering on the day of Pentecost. The disciples were not to regard this as the result of their own efforts. They were entering into other men's labors. Ever since the fall of Adam Christ had been committing the seed of the word to His chosen servants, to be sown in human hearts. And an unseen agency, even an omnipotent power, had worked silently but effectually to produce the harvest. The dew and rain and sunshine of God's grace had been given, to refresh and nourish the seed of truth. Christ was about to water the seed with His own blood. His disciples were privileged to be laborers together with God. They were coworkers with Christ and with the holy men of old. B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thousands were to be converted in a day. This was the result of Christ's sowing, the harvest of His work." DA 192.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 함이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들어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오순절 날의 큰 모임을 고대하며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택한 종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인간의 마음에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관, 심지어 전지전능한 권능이 추수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 햇빛이 진리의 씨앗을 상쾌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 씨앗에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옛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으로 하루 만에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씨 뿌림의 결과이자 그분의 사역의 수확이었습니다.” DA 192.1

“In the words spoken to the woman at the well, good seed had been sown, and how quickly the harvest was received. The Samaritans came and heard Jesus, and believed on Him. Crowding about Him at the well, they plied Him with questions, and eagerly received His explanations of many things that had been obscure to them. As they listened, their perplexity began to clear away. They were like a people in great darkness tracing up a sudden ray of light till they had found the day. Bu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is short conference. They were anxious to hear more, and to have their friends also listen to this wonderful teacher. They invited Him to their city, and begged Him to remain with them. For two days He tarried in Samaria, and many more believed on Him.” DA 192.2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좋은 씨앗이 뿌려졌고, 얼마나 빨리 수확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우물가에 몰려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냈고, 그동안 잘 몰랐던 많은 것들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당혹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짧은 회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친구들에게도 이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자기 도시로 초대하여 그분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물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DA 192.2

11월 2일 금요일

Further Thought
더 깊은 연구를 위해

“The Samaritans believed that the Messiah was to come as the Redeemer, not only of the Jews, but of the world. The Holy Spirit through Moses had foretold Him as a prophet sent from God. Through Jacob it had been declared that unto Him should the gathering of the people be; and through Abraham, that in Him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ould be blessed. On these scriptures the people of Samaria based their faith in the Messiah. The fact that the Jews had misinterpreted the later prophets, attributing to the first advent the glory of Christ's second coming, had led the Samaritans to discard all the sacred writings except those given through Moses. But as the Saviour swept away these false interpretations, many accepted the later prophecies and the words of Christ Himself in regard to the kingdom of God." DA 193.1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예언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구들을 근거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후대의 선지자들을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첫 번째 강림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서를 제외한 모든 성서를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쓸어버리시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후기 예언과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DA 193.1

“Jesus had begun to break down the partition wall between Jew and Gentile, and to preach salvation to the world. Though He was a Jew, He mingled freely with the Samaritans, setting at nought the Pharisaic customs of His nation. In face of their prejudices He accepted the hospitality of this despised people. He slept under their roofs, ate with them at their tables,—partaking of the food prepared and served by their hands,—taught in their streets, and treated them with the utmost kindness and courtesy.” DA 193.2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셨고, 그 나라의 바리새적 관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에 맞서 멸시받는 이 민족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지붕 아래에서 주무시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준비하고 제공하는 음식을 취하셨고,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으며, 최고의 친절과 예의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DA 193.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